

# ‘온 마을이 미술관’ 양림동으로 오세요



오늘 양림골목비엔날레 개막  
6월25일까지 볼거리·즐길거리 풍성  
광주비엔날레 주제전 전시관,  
파빌리온프로젝트 전시장 탈바꿈  
오픈스튜디오·아트살롱파티도

근대문화의 보물창고 양림동이 현대미술의 현  
장으로 변신한다.

온 마을이 미술관이 되고 모든 주민이 호스트가  
되는 2023 양림골목비엔날레가 14일 오후 2시 한  
희원 미술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25일까지 73일간 계속된다.

특히 올해는 양림동 일대가 제14회 광주비엔날  
레 주제전 전시관과 파빌리온 프로젝트 전시장으  
로 탈바꿈해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해졌  
다.

마을 내 예술인과 문화기획자가 주축이 된 ‘양  
림미술관거리협의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  
시 프로그램(기획전시, 오픈스튜디오)과 주민참  
여 프로그램(양림스폰워크, 양림한평순, 예술체  
험 및 도슨트투어)와 기금마련을 위한 아트마켓,  
네트워킹을 위한 아트살롱파티 등으로 구성됐다.

양림골목비엔날레는 지난 2월 말 기획전시 참  
여작가 선발을 통해 광주전남을 활동 기반으로 하  
는 15명의 작가가 양림동 골목골목의 빈 집과 빈  
점포 7개소를 전시 공간으로 조성했다.

한편, 양림동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업공간  
을 엿볼 수 있는 오픈스튜디오 11개소(12인)도  
오픈했다. 기존의 작가 갤러리 외에도 새롭게 전  
시장으로 조성된 일상공간과 그동안 개방되지 않  
았던 아틀리에 등에서도 작가와 만나는 기회를 가  
질 수 있다. 최순익 작가의 고양이쇼 갤러리, 강근  
선 작가의 갤러리 고철, 이이남 스튜디오, 최석현  
작가의 갤러리 늘 등이다.

이번 행사의 전시 참여 작가들 작품은 아트마켓  
섹션을 통해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있다. 아트마  
켓은 6월 25일까지 10년후그라운드 1층에서 진행  
된다.

양림골목비엔날레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을의 다  
양한 주체들이 호스트가 되어 방문객을 맞이한다  
는 점이다. 양림스폰워크는 양림동 내의 식당, 카  
페 등 상점들이 대거 참여하는 그랜드세일 행사이  
다. 축제 기간 동안 두 번의 시즌(5-16, 5월19-  
28)에 걸쳐 전 매장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각 점



양림골목비엔날레에서는 다양한 공간이 갤러리로 변신한다. 윤세영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양림동 빈 집. <양림골목비엔날레 제공>

포만의 시그니처 메뉴 또는 신메뉴를 선보인다.  
지난 4월 5일부터 이번 주 16일까지 양림스폰워  
크를 계기로 양림동 상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  
는 30개 매장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손님을 맞  
이하고 있다.

광주시 예술여행학교 출신 수료생들이 만들어  
가는 도슨트 프로그램은 양림동에서 같은 시기에  
펼쳐지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와 양림골목  
비엔날레를 함께 연계하여 코스를 구성했으며, 축

제 전 기간 동안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된  
다. 도슨트 투어는 양림골목비엔날레 네이버 예약  
페이지를 통해 유료로 신청할 수 있다.

아트살롱파티는 지역 예술계와 국내의 예술계  
인사, 그리고 예술 여행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  
류하고, 행사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 저녁 개최된다. 22일과 4월 29일 파티는  
네이버 예약 페이지를 통해 유료로 신청할 수 있  
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봄’ 새로운 시작 ‘아트 원더우먼’ 전

26일까지 유·스퀘어...김동아·성혜림·양나희·정정하·조선아

유·스퀘어가 봄을 맞아 5명의 여성작가들의 개  
성을 담아낸 기획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육아와 작업을 병행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5명의 여성작가들을 응원  
하고자 ‘아트 원더우먼-5인5색’전을 오는 26일까지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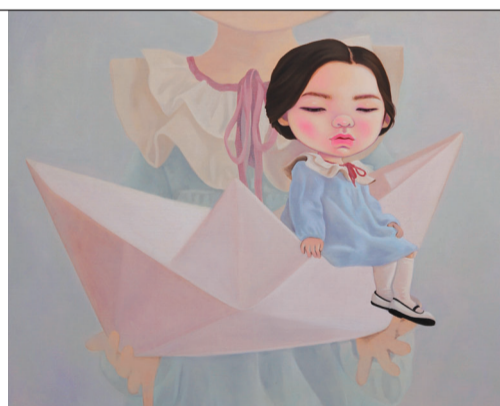
작가들은 그간 예술가로서, 엄마로서 고민했던  
것들을 풀어가며 작품에 그려진 것들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 전시를 통해 보여주려 한다. 김동아, 성  
혜림, 양나희, 정정하, 조선아 작가가 참여하며, 모

두 광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여성작가들이다.

김동아 작가는 어린이와 강아지의 모습을 재  
미있게 그려낸다. 성혜림 작가는 자신의 경험에서  
느꼈던 여러 모습의 나를 어린 소녀로 그려낸다.

양나희 작가는 덧붙인 끝판지 위에 유화로 채색  
하는 종이 부조 회화를 그려낸다. 정정하 작가는  
페인트를 이용해 빛에 따라 변하는 색을 표현해낸  
다. 조선아 작가는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느꼈던  
순간을 추상적으로 그려낸다.

갤러리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5명의 원



성혜림 작 '전하다Message-소망'

더우먼들이 모여 서로의 작업에 대한 생각을 교류  
하며, 향후 작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본  
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청명하늘에 물이 올랐네’

광주문화재단, 토요일상설공연... 15일 전통문화관

청명과 곡우는 4월을 대표하는 절기다. 올해는  
5일과 20일이 각각 청명과 곡우로, 하늘이 맑고  
봄비가 내려 백곡이 기쁨지다는 뜻을 담고 있다.

봄의 절정에 맞춰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행  
사가 마련됐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 전통문화관은  
4월 3주차 토요일상설공연을 오는 15일 개최한다.  
‘청명하늘에 물이 올랐네’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  
번 행사는 구연동화, 해설이 있는 무형문화재 작  
품 전시, 토요일상설공연 등이 펼쳐진다.

먼저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무·형·담(無·形·談)’  
은 광주시 무형문화재 조기중 소목장의 작품 전시  
를 보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해설을 들을 수 있

다. 해설은 박종오 교수(전남대학교)가 맡았다.

이어지는 구연동화 ‘돌아온 이야기꾼’이 준비  
한 작품은 ‘나무는 숲을 기억해요’(로시오 마르티  
네스 著). 2014년 우수환경도서로 선정된 작품으  
로 나무 한 그루가 사람들을 만나며 겪는 일을 모  
티브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이야기 한다.

어린이 프로그램인 ‘무·형·담’, ‘돌아온 이야기  
꾼’, 나비머리핀 만들기는 선착순 어린이 20명 에  
전화 사전접수를 받아 진행되며 체험 후 다육식물  
을 받아갈 수 있다.

서석당에서 펼쳐지는 토요일상설공연은 ‘국악중  
심 연(대표 김나영)’의 전통무용 무대가 마련돼  
있다. ‘국악중심 연’은 2000년 창단된 전통예술



구연동화와 민속놀이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단체로 국악과 인접장르의 결합을 매개로 무대를  
넓혀가고 있다.

포토존 이벤트도 28일까지 진행 중이며, 전통  
문화관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인증하면, 추첨  
을 통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62-670-850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지현 신동민 김한나 전태화

## ‘희극 & 비극’ 사랑의 묘약 & 라보엠

광주오페라단 창단 41주년, 1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희극 VS 비극’

광주오페라단 창단 41주년 기념 공연이 17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오페라 갈라 콘서트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  
는 희극을 대표하는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과  
비극으로 끝나는 푸치니의 ‘라보엠’의 인기 아리  
아와 중창곡들을 선사한다.

‘사랑의 묘약’에서는 유명 아리아인 ‘남몰래 흘  
리는 눈물’을 테너 신동민이 들려주며 ‘옛날 파리  
스카한 것처럼’(바리톤 김치영), ‘트리스탄은 이  
줄대를 사랑했지’(소프라노 이지현) 등을 선사하  
다. 듀엣곡으로는 ‘말하자면 사랑의 묘약’, ‘얼마  
난 사랑했는지’ 등을 만날 수 있다.

‘라보엠’에서는 ‘내 이름은 미미’를 소프라노 윤  
한나가, ‘그대의 찬송’을 테너 김정규가 선사하며  
소프라노 장미리이는 ‘내가 길을 걸을 때면’을 들  
려준다. 네 명의 성악가가 함께 부르는 ‘정말로 이  
별인가’와 남성 이중창 ‘더 이상 미미는 돌아오지  
않고’도 만난다.

양곡곡으로는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를 들려준다.

김기준 단장이 기획 및 총단장으로 참여했으며  
소프라노 유희민이 해설을 맡았다.

클랑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으며 김병  
무가 지휘봉을 잡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소년’



‘아디오스 오디오’

## 야외서 즐기는 청춘들 위한 뮤직콘서트

ACC재단 ‘빅도어콘서트’... 5월7일 예술극장 야외무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  
이 부쩍 늘었다. 봄은 젊은이의 계절이라는 표현  
답게 저녁이나 주말이면 나들이를 나온 젊은 청춘  
들로 도심이 활기가 돈다.

가 올해도 ACC 예술극장 야외무대서 선을 보  
인다.

ACC재단은 오는 5월7일(오후 6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예술극장 야외무대에서 빅도어콘서  
트를 연다. 13일부터 5월 6일까지 ACC 누리집에  
서 사전 예매로 구매 가능하며, 콘서트 당일인 5  
월 7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 판매가 진행된다.

첫 무대 주인공은 화려한 무대매너로 관객들과  
호응하는 남성 4인조 록밴드인 ‘밴드 바투’. 이들

은 파워풀한 연주와 인상 깊은 퍼포먼스로 봄날의  
저녁을 활기로 물들게 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아디오스 오디오’의 무대가 펼쳐진  
다. 작별 인사의 뜻을 가진 스페인어 아디오스와  
녹음물을 의미하는 영어 오디오의 합성어로, 이들  
은 오디오가 아닌 라이브 공연을 통해 사람과 만  
나겠다는 바람을 담아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콘서트 마지막은 황소윤과 박현진으로 구성된  
‘새소년’이 장식한다. 끊임없는 음악적 시도를 선  
보이는 은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의 신인’과 ‘최우  
수 록 노래’ 부문을 수상하며 인디음악의 대표 주  
자로 자리 잡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최명희문학관, 혼불문학상 수상작 감상문 공모전

‘혼불’은 전주 출신 최명희 작가가 17년 동안 집  
필한 대하소설이다. 순우리말과 민속에 대한 다양  
한 자료들이 소설의 재료로 쓰임에 따라 민속학  
적, 국문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소설 ‘혼불’의 의미를 확산하고 계승하기 위해  
혼불문학상이 작가 최명희와 작품을 기리는 행사  
가 매년 진행되고 있다.

최명희 문학관은 혼불문학상 수상작에 대한 감  
상문 공모전을 연다. 올해 대상작품은 김명주 작  
가의 ‘검푸른 고래 요나’. 소설은 ‘고래인간’이라  
는 환상적인 소재로 환경과 기후에 강렬한 질문을  
던진다.

심사위원들은 ‘다양한 대중문화의 상상력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소설의 중요한 장치로 설  
정해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이야기의 퍼즐을 맞  
춰나가는 구성으로 가독성을 높였다’라고 평한 바  
있다.

감상문 공모에 참가를 원하는 독자는 작품을 읽  
고 느낀 점을 A4용지 2장~7장(200자 원고지 15  
매~50매) 분량으로 쓴 뒤, 최명희문학관 홈페이지  
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메일(jeonjuhonbul@  
nate.com)이나 우편(전북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  
길29)으로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 발표는 5월 말이며 대상과 우수상 수상  
자는 혼불문학상 시상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문  
의 063-284-0570. /박성천 기자 skypark@